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(재)서울대학교발전기금 기획팀
	담당자: 정미, 전화: 02-871-1621, 이메일: jungmi@snu.ac.kr

배포일: 2022. 1. 26.(수)

이도영 CM충무병원 이사장, 의과대학 '이범순 장학기금' 2억원 쾌척

□ 이도영 CM충무병원 이사장(의대 63)은 의과대학 '이범순 장학기금'에 2억원을 출연했다. 이에 서울대는 2022년 1월 25일(화)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, 여정성 교육부총장, 김영오 학생처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과 이윤경 CM충무병원 행정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도영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.

□ 이도영 이사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 학사 및 석·박사 졸업자로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미국 시카고 Mount Sinai 병원에서 Fellowship을 역임하였다. 이도영 이사장은 CM충무병원 설립자인 선친 故이범순 박사의 병원에 정형외과장으로 시작한 후 2대 병원장에 취임한 1984년에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고 2012년에 3대째 원장으로 서울대 의대 동문인 아들 이상훈 (의학93 및 석·박)을 영입하였다. 이상훈 원장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병원, 복지부 인증 관절전문병원, 우수 내시경실, 우수 검사실을 갖추고 정확한 진단과 정직한 치료와 함께 관절-척추분야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으로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하여 3차 종합병원으로 확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.

□ 73년간 한 장소에서 3대째 지역사회의 건강과 의료발전에 동참해 오고 있는 이도영 이사장은 부인 이윤경(간호학과 65), 아들 이상훈 원장과 함께 가족의

료진 및 전문 의료진과 함께 관절전문병원으로 특별히 치료가 불가능한 분야의 근·골격계 질환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. 국내 최초로 IOC 스포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스포츠 의학 전문가인 3대 병원장인 이상훈 원장은 어깨-팔꿈치분야의 독보적 선두주자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전담하는 한국 최고 스포츠 병원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.

□ 오세정 총장은 “서울대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이도영 이사장님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” 며 “선친이신 故이범순 원장님을 추모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뜻은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것” 이라고 전했다. 또한 “출연해주신 ‘이범순 장학기금’ 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” 며 감사의 뜻을 담아 패를 전달했다.

※ 사진설명: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이도영 동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